

사회

# 등록금 인하 시늉만 냈다

## 지역 대부분 대학들 고작 5% 내려 학기당 10만원~30만원... 체감 못해

2012학년도 대학 1학기 등록금 납부를 앞두고 반값등록금 실현여부에 부풀었던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기대가 '역시나'로 바뀌고 있다.

대학생과 학부모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이 반값 등록금을 외친데다, 정부도 연차적으로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등록금 인하 입장을 피력했기 때문에 올 신학기를 앞두고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여론에 편승해 반값 등록금을 외쳤던 정치권이 총선 모드로 돌입하면서 등록금 인하는 아예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특히 정부는 근본적인 등록금 인하 방안은 마련하지 않은 채, 재정 지원을 압박수단으로 대학들에게 5% 인하를 촉구하는 등 대학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대다수 대학들이 최근 2~3년간 등록금을 동결한 상황이어서 대학들의 정부에 대한 불만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대부분 대학들이 5%라는 하나하나 한 인하 방침을 발표하면서 대학생과 학부모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다. 여기에 일부 사립대들은 아직도 다른 대학 눈치를 보고 있는

가하면 소수 대학들은 인하를 폭을 놓고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전남지역 4년제 국립대들은 등록금의 5%를 인하기로 결정, 학생들은 한 학기에 고작 10만원~12만원의 부담을 덜게 됐다.

그러나 4년제 지역 사립대들은 대부분 아직도 타 대학 인하 여부를 타진하는 등 최종 입장을 결정하지 않았지만 3~5%인하를 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한 학기 20~30만원 정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대들은 이미 상당수가 4~5%인 33만원~40만원 정도를 인하하기로 결정해 발표했다.

전남대학교는 최근 교수·학생·기성회 등 대학구성원 대표와 외부 인사 등이 참여한 재정위원회 열어 올 등록금을 전년 대비 평균 5% 내리

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한 학기당 등록금은 11만원 가량 줄어든다. 계열별로 재학생 기준(학기당) 인문사회계열 174만6000원, 자연계열 207만7000원, 공학계열 224만7000원, 예능계열 231만3000원이다.

목포해양대학교도 5% 인하를 결정해 한 학기에 11만원 정도의 부담이 준다.

조선대는 등록금을 동결하는 대신 장학금 50억원 이상 늘려 등록금 8% 인하 정도의 효과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동신대와 광주대 등 지역 사립대는 인하 여부 및 인하율을 놓고 한창 고심중이다.

조선이공대학은 평균 4.1% 등록금 인하를 결정해 한 학기에 35만원 정도의 부담이 줄어들며, 동강대학교도 5% 인하를 통해 40만원 정도를 내릴 계획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원어민 영어체험하는 어린이들 '드림스타트'에 참여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16일 겨울방학을 맞아 광주시 북구 오정초등학교 영어센터에서 열린 '원어민 영어체험 프로그램'에서 원어민 강사와 물건을 구입하는 상황체험학습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외모·군입대 부담 자살

지난 15일 오전 10시께 대학생 최모(19)군이 광주시 북구 모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번개탄을 피워놓고 숨져있는 것을 어머니 전모(49)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최군은 16일 군에 입대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경찰은 최군이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과 군 입대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주차장서 50대 추락사

16일 낮 12시30분께 광주시 남구 구동의 한 건설회사 건물 1층에 설치돼 있는 자동주차기계를 이용해 주차를하던 황모(56)씨가 8m 아래로 추락했다.

황씨는 사고 직후 이 건물 경비원에게 발견돼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가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음주 사고후 출동경찰에 주먹 휘둘러

○...면허정지 수 준의 술을 마신 뒤 교통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두른 30대 택시기사(김)가 경찰서행.

○...16일 광주서부경찰에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입건된 장모(35)씨는 지난 14일 밤 7시40분께 광주시 서구 벽진동 제2순환도로에서 면허정지 수치의 음주 상태에서 자신의 25t 덤프트럭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서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김모(37) 경사에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

○...장씨는 경찰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될 것이 두려워 순간적으로 흥분한 것 같다"며 선처를 호소.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 광주지법 10개월간 구속영장 기각 사유 분석해 보니

# 성폭행·뇌물수수·강도까지 기각

### “도주 우려 없다” 이유... 공정률 만들어야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 3건 중 2건이 '주거 및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없다'는 이유로 기각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 검찰의 범죄 소명부족이나 초범, 합의, 자백, 방어권 보장, 자수, 학생 신분 등의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기각된 경우는 전체의 35% 정도에 불과했다.

광주일보가 입수한 '2011년 1월~10월 광주지법 구속영장 기각 현황'에 따르면 해당기간 동안 모두 340건의 영장이 기각됐다. 이 가운데 강간 등 성폭행, 뇌물수수, 특수강도, 강도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치사 등 주요 범죄 221건(65.0%)이 주거 일정,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없음 등의 이유로 기각됐다. 구속영장 기각

340건 가운데 사선번호인을 선임한 사건은 모두 108건, 국선 번호인이나 변호인이 없었던 경우는 232건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사선 번호인을 선임해 기각한 108건의 구속영장 중 76건(70.4%)이 주거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없다는 것이 그 사유가 됐다는 점이다.

법조계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공판중심주의가 정착되면서 구속영장 발부를 최소화하려는 추세에서 '주거 일정,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없음'에 대한 객관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판사의 성향 등에 따라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구속영장 발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주거 일정,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없음'이라는 기준을 적용할 경우 상당수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은 기각될 수밖에 없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한 변호사는 "구속은 개인의 삶에 치명적인 상처를 주고 향후 있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범죄 피의자라면 모두 이를 피하기 위해 노력한다"며 "피의자나 그 가족들이 형사사건에 고액의 선임료를 내고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은 구속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구속된 상태에서 석방 여부를 심사하는 구속적부심사청구사건,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고 피고인을 석방하는 보석청구사건 등도 변호인을 선임해야만 석방 및 허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

터 10월까지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 사건 65건 중 석방명령은 17건으로, 모두 변호인(14건)이나 법정대리인(3건) 등을 선임했다. 또 같은 기간 1심 보석청구사건 149건에서 허가를 받은 74건 중 73건이 변호인(71건)과 법정대리인(2명)을, 2심 보석청구사건 115건에서 허가를 받은 41건 모두 변호인(35건)과 법정대리인(6명)이 참여했다.

지역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구속영장 기각, 구속적부심사를 통한 석방, 보석허가 등은 모두 변호인들에게 큰 수입을 보장하는 것으로, 여기에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 등 법조계의 고질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며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모든 이들이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한 룰을 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방파제 30대 숨진 채 발견 영광경찰, 살해용의자 추적

경찰이 영광의 방파제에서 심하게 맞아 숨진 채로 발견된 30대 남성의 살해 용의자 추적이 나섰다. 영광경찰은 16일 진구 박모(32)씨를 폭행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강도(32)씨를 용의자로 지목해 수사 중이다.

박씨는 지난 15일 오후 1시20분께 영광군 흥농읍 계마항 방파제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강씨는 며칠 전 박씨와 싸우다가 폭력혐의로 경찰에 입건됐고 이후에도 박씨를 만나 합의를 시도하다가 심하게 다투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부취재본부=조익성기자 ischo@

### “설 연휴 교통사고 나면 대형”

설 연휴 교통사고 1건당 사상자수가 2명이 넘어 평상시는 물론, 추석 연휴 때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공단은 16일 2007~2010년 설·추석 등 명절 연휴기간 교통사고 실태를 분석한 결과 설 연휴의 교통사고 1건당 사상자수가 2.02명으로 추석 연휴 1.95명보다 평상시 1.59명을 웃돌았다고 발표했다.

반면 설 연휴기간 1일 평균 교통

사고 발생건수는 420.5건으로 평상시 609.5건과 추석 연휴 515.6건보다 적었다. 또 명절 교통량도 추석 연휴가 1일 평균 1만898대로 설 9천734대보다 10.7% 많았다.

음주운전 사고도 설 연휴에는 64.1건으로 추석연휴 82.9건보다 29.3% 낮았지만 사고 1건당 사상자수는 2.17명으로 추석 1.92명보다 11.5% 높았다. 똑같이 술을 마시더라도 설 연휴 때 교통사고 사상자가 더 많은 이유는 폭설과 한

### 1건당 사상자수 2명 추석때 보다 많아

파 등의 겨울철 날씨 탓에 사고 피해가 더 커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사고예방을 위해 ▲타이어 공기압, 브레이크 작동상태, 배터리, 오일류, 냉각수, 워셔액 점검 ▲면허증, 보험증권, 비상삼각대, 증거보존 스프레이 준비 ▲전좌석 안전띠 착용 ▲절대 음주 금지 ▲휴대전화와 TV 사용 금지 ▲장거리 운행시 2시간마다 휴식 등의 안전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 대학편입 정원 대폭증가!

2013학년도 대학편입을 위한 초석다지기 과정, 편입개론과정 대개강!  
편입 1:1 문자상담 : 010-7766-1254

## 대학편입이란? 수능결과를 뒤엎는 또한번의 찬스!!

재수	vs	편입
1학년입학 / 4년재학		출입시기
고등교과목 전과목 (약 16과목)		준비과목
각 군별 1회 지원		복수지원
		3학년입학 / 2년재학
		영어(인문) / 영어, 수학(자연)
		대학별 지원(최대 20회 이상 복수지원 가능)

편입합격자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김영편입학원**  
광주동부경찰서 뒤(062)227-8088  
www.kimyong.co.kr 개강: 2월1일